

국내외 인쇄트렌드 동향 한눈에

9월 8일부터 4일간 국제인쇄산업전시회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주)한국이엔엑스(대표이사 김충진)는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과 인쇄문화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쇄 관련 전시회인 '국제인쇄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KIPES 2010)'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엔엑스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KOTRA,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인쇄

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IT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는 인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쇄관련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될 KIPES 2010은 인쇄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을 제공할 것이며, 디지털인쇄 시스템 Zone, 인쇄 및 프리프레스 Zone, 라벨 및 스크린

기자재 Zone, 제본, 지가공 및 포장기자재 Zone으로 구성하여 한층 더 다양해진 인쇄산업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쇄패러다임 종합인쇄전시회 KIPES 2010

지난 1978년 첫 회를 시작한 KIPES 전시회는 인쇄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KIPES 전시장에서 21,384㎡의 전시공간에서 26개 국 400여개 사 이상의 업체들이 최신의 인쇄기술과 정보들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도에는 전회보다 규모면에서 약 30%정도 신장된 1만8045㎡의 면적에 25개 국 357개 사가 참가했으며 4만291명의 관람객들이 4일간의 인쇄대제전을 함께 했다.

이번 KIPES 2010에는 인쇄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존의 인쇄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IPES 2010은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서 유망전시회로 선정돼 해외바이어의 지원 확대는 물론, 해외기자, 단체장 등의 초청과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IPEX2010에도 참가해 KIPES 2010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이번 KIPES 2010은 기존의 인쇄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쇄패러다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인쇄단체와 함께하는 KIPES

KIPES 2010 전시 기간 중에는 약 40여회 이상의 인쇄관련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 외에 중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인쇄산업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 특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한 인쇄출판환경의 표준화를 위한 솔루션관련 세미나, RFID 관련세미나, 라벨인쇄 관련세미나, 친환경적인 인쇄를 위한 세미나 외에 출품사들의 자사 최신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 등 다수의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KIPES 출품업체와 국내외 바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방문객 사전 상담예약을 포함하여 참관시 편리한 등록을 도와주는 참관객 사전등록시스템, 저렴하고 편리한 숙박 및 교통안내 등 여러 편의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KIPES 홈페이지 www.kipes.com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KIPES는 국제전시협회인 UFI와 국내 지식경제부 및 경기도에서 인증 받은 국제적인 전시회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인쇄전시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금번 전시회에 세계 각국의 인쇄관련 단체장, 언론인 그리고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국내관련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KIPES 2010은 급변하는 인쇄환경에서 인쇄관련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IPES 2010에 고인쇄문화관 설치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지식의 창조적 가치를 알리고 현대의 인쇄기술을 알리기 위해 'KIPES 2010'에 인쇄문화홍보관을 설치 운영한다.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 인쇄문화홍보관을 마련해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 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 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 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원봉사자가 현지에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을 실시해 관람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우수인쇄물을 전시할 방침이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